

“스님의 원적 실상도리 보이심...”

벽암스님 영결·다비식 10일 신원사서 엄수

벽암(碧岩)당 동일(東日)대종사 영결식이 5월 10일 공주 신원사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우리 종문의 선지식이신 벽암대종사께서 말후구(末後句)를 남기고 환귀본처(還歸本處)하셨다”며 “눈앞에 가득한 정산이 전로 법신(全露法身)인데 일체성색(一切成色)이 어찌 스님의 진성(眞性)과 다름이 있겠습니까?”라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원로의원 지관 스님이 대독한 영결사를 통해 “오늘 대종사께서 제공신을 감겨 물들이고 조수(鳥獸)들마저 울음을 멈추게 하시며 원적을 보이신 것은 제불조사(諸佛祖師)들이 보이신 그것과 다름이 없으며 실상의 도리를 일러 주심”이라며 원적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 무관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큰스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종문(宗門)에는 요즘도 부끄러운 일도 적지 않습니다”라며 “이에 종도들은 스님께서 굳이 꽃피는 봄에 입적한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제

불제조(諸佛諸祖)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길을 가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백악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송석구 전 동국대학교 총장의 조사에 이어 영결식은 조가, 분향 및 헌화, 발인 순으로 끝났다.

한편 스님 법구는 신원사에서 도보로 10여분 떨어진 다비장으로 이운된 후 본래 제 자리로 돌아갔다.

“禪냄새 안나는 선사였습니다”

- 문도·후학들이 말하는 벽암 스님

“진짜 된장은 된장 냄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 벽암 스님은 선 냄새나지 않는 선사였습니다.”

벽암당 동일대종사 문도 중 한탑 스님은 벽암 스님을 “엄격했지만 자 유로웠고 냉정했지만 자상했다”고 회고했다.

신원사 벽수선원장 묘봉 스님의

생각도 비슷했다.

“스님은 호 ‘벽수’처럼 원적에 들기 전까지 물 흐르듯 사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때를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된다면 이 세 가지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로



벽암당 동일대종사 영결식에는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유명한 현각 스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거 때마다 선방을 지켰던 벽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꺼내자 묘봉 스님은 “스님 이러한 단언히 해야 할 도리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사 회주 법전 스님은 “벽암 스님은 한 번 옳다고 생각하시면 굽히지 않으셨다”며 “엄격함”을 강조했다. 유발상좌인 강동균 교수(동아대)도 “수행을 무리하게 해 이가 없애지고 폐병까지 얻을 정도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상좌들에게 주지 자리 한 번 추천한 적 없었을 뿐 아니라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계셨을 때도 동국대 다니는 상좌들에게 장학금 한 번 쟁겨주시는 법 없으셨다”며 “이 때문에 일부 상좌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기도 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스님의 진면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묘봉 스님은 벽암 스님이 원적하기 전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냥 기를 한 톨 붓고 불태워버려라. 사리도 수습하지 마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었던 ‘선 냄새’ 스님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신원사·남동우 기자

종단협·조불련 ‘한 목소리’

독도·역사왜곡 관련 일본 강력규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와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화) 중앙위원회가 공동으로 일본의 독도주권 침해 및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 규탄했다.

종단협과 조불련은 5월 10일 발표한 입장에서 “우리 남북불교계는 진정한 입장에서 ‘우리 남북불교계는 진정한 입장에서’”

에서 일본의 사회지도층을 계도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남과 북의 불교도들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부처님 전에 엄숙히 서원한다”고 밝혔다.

종단협과 조불련은 일본 정부에게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철회 ▲과거사 날조 왜곡교과서 검정 합격 즉각 취소 ▲영토주권 침략행위 즉각 중지 ▲침략과 전쟁의 과거사 참회 및 아시아 평화와 상생의 길 동참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1면에서 계속

반면 불교사회복지법인인 2001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간한 ‘한국불교복지현황’에서 밝힌 43개보다 8개 늘어나 51개. 불교계 내부에서도 시설수확보다 직접운영 위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2001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표한 수치인 50개에서 105개로 급격히 증가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에 불교계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수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노인층에 특히 필요한 의료복지가 가능한 시설의 수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까지 포함해 91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불교복지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곳은 노인전문 병의원 1곳인 충북과 노인종합복지관 1곳이 있는 전북으로 삼비오 양원, 전문요양원 등이 단 한 곳도 없는 이들 지역 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2004년 밝힌 자료에서 41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중 불교계 시설은 4개소로 약 0.96%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장애인 복지자들이 불교를 등지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불교계가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전국적으로 113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국내 민간

보육시설 1만 4145개소의 0.8%에 불과한 수치다. 게다가 보육원 7개소(전체 시설 대비 2.9%), 그룹홈은 3개소 밖에 안돼, 저소득층이동을 위한 생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복지시설들이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인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과 여성 전용 복지시설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계 복지시설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복지관은 37개 중 34개(91.9%), 노인복지관은 78개 중 61개(78.2%) 시설이 홈페이지를 운영해 정보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126개 중 37개(29.4%), 청소년 복지시설은 29개 중 5개(17.2%) 시설만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정보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151개로 운영하는 시설 149개를 넘어섰고 있어, 절반 이상의 시설이 정보화사회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부다피어는 올 8월중 부다피어(http://buddhania.com) 사이트 내에 ‘복지사이트’를 신설해 이번에 발표한 조사자료와 사회복지종류는 물론 자원봉사처와 봉사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복지자료를 제공, 복지관 소식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리더십 강한 여성이 아름답다”

여성개발원 18일부터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조계사 교육관에서 ‘여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조계종 중앙총무원 여성 총무원을 비롯해 불교계 여성 지도자 및 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해 이번 교육은 여성들의 리더십을 향상시켜 조직 내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여성 활동가들 간의 연대식 강화,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3개월간의 기본교육과 과제학습, 1박 2일간의 워크숍이 포함된 이번 교육은 ▲숙명여대 이희영 강사, 문화관광부 손경원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 조사연구팀장 등과 함께

고향해보는 ‘여성에게 필요한 리더십’ ▲평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이근후 명예교수 등이 강연하는 ‘나를 알아야 남을 이끌 수 있다’ ▲각종 여성단체 및 여성교수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지도자들을 초청해 조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생생한 현장 리더십 배우기’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에게 듣는 ‘여성 리더의 비전 만들기’ 등 총 4개의 세부내용으로 총 10주간 매 주1회씩 진행된다.

불교여성개발원 이화 사무국장은 “여성 입장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 리더십 교육 수강료는 3만원이다. (02) 722-2102 이은비 기자

만봉스님 ‘특별전시회’ 열린다

태고종, 전승기념관 불사 성금모금위해

2006년 9월 완공예정인 태고종 새 총무원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공한 이후 전승관 건립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태고종이 전승관 불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건립성금 모금을 위한 만봉스님 특별 전시회를 연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5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승관 건립은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중흥의 의미를 띠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불사”라며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만봉스님의 작품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시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6월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백상빌딩 내 모란갤러리에서 열리는 ‘만봉 스님 불화·민화 작품전’에는 상단탱화, 감로탱화, 영산회상도, 극락도, 팔상도, 관음도, 나한도, 달마도 등의 불화와 십이지신상, 신선도 등의 민화, 나한도 달마도 관음도 등으로 제작한 미니병풍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얼마 전 입적한 조계종 원로였던 석주 스님이

글을 쓰고 만봉 스님이 그림을 그린 수습여 접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전승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전승관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건립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48호)은 “한국불교 전체의 중흥을 위해서도 전승관 불사는 성공리에 회향되어야 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신홍사 주지에 무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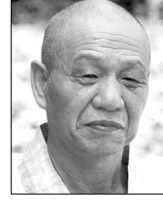
9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속초 신홍사 새 주지에 무산(吳善) 스님이 선출됐다.

신홍사는 5월 11일 강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 후보에 무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0일 무산 스님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무산 스님은 59년 직지사에서 성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신홍사 주지, 성준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신홍사 주지 무산스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어 www.buddhan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론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교무 백운, 사회 법현 스님

태고종 총무원 인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5월 4일 교무부장 前 사회부장 백운 스님, 사회부장에 前 교무부장 법현 스님을 임명했다.

새로 설치된 호법부의 수장으로는 성종 스님(안성 약사사)을 선임했다. 또 문화부장은 前 문화부장 목원 스님을 임명했다. 박병우 기자

고침

본지 525호 A15면 봉축 법어 중 미륵종 종정 대행으로 표기된 송정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입니다. 현재 종정 스님은 연화 스님(사진입니다. 미륵종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진감 초의선사의 다맥茶脈전수 및 쌍계사 산사음악회

쌍계사 산사음악회

1. 산사음악회 『진공묘유(眞空妙有)』

- 일시 : 2005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 9시
- 장소 : 쌍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 주관 : (사)진감 초의다맥 한국선다회
- 후원 : 하동군청, 쌍계사 본말사연합회, 불교신문, 불교방송
- 출연 : 나왕케축 (티벳 피리연주자), 설운도 이 안 (대장금 주제가), 고려대 노래패

2. 다맥전수식 및 헌다례

- 일시 : 2005년 5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쌍계사 대웅전
- 문의 : 쌍계사 종무소 및 홈페이지
-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5번지
- 전화 : (055)883-1901 ~ 2
- 홈페이지 : www.ssanggyesa.net

사단법인 진감 초의 다맥 한국선다회 이사장 고 산 (문의 : 쌍계사 종무소 055-883-1901~2)